

# 특수목적관광 유형 간의 대체보완 및 총 관광수요와의 영향관계 -상관관계분석 및 계량경제모형의 활용-

Substitute or Complementary among Types of Special Interest Tourism and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otal Individual Tourism Demand and Each Types  
-Application of Correlation Analysis and Econometrics Models-

곽강희

부산동명대학교 호텔경영학과

Gang-Hee Gwak(avenuy@tu.ac.kr)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 목적관광유형들 간의 대체보완관계 및 총 개인관광수요와 각 유형의 특수목적관광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00개의 표본 중에서 349개의 유효표본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통계적 분석방법으로서 상관관계분석은 대체보완관계의 파악을 위해 그리고 인과관계분석을 위해서는 계량경제모형이 적용되었다. 연구결과, 농촌관광과 해양관광은 상호 경쟁적 대체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해양관광은 다른 어느 유형의 특수 관광보다 총 개인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 중심어 : | 특수목적관광 | 관광수요 | 대체-보완관계 | 한계효과 | 계량경제모형 |

## Abstract

An aim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ubstitute or complementary among types of special interest tourism and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otal individual tourism demand and each types. Of 500 surveyed respondents in Seoul, 348 was valid to analyse. As statistical analysis method, correlation analysis was utilized for substitute or complementary and Econometrics models were applied for causal relationship.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agro tourism and ocean tourism lie on substitute which means competitive. Also, ocean tourism has had more impacted on total individual tourism demand than any other types of special interest tourism.

■ keyword : | Special Interest Tourism | Tourism Demand | Substitute-Complementary | Marginal Effects | Econometrics Modell

## I. 서론

오늘날 국내의 관광수요 및 형태의 다변화는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가속화, 정보·통신기술의 성장확대 등으로 인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자연친화적이고 문화체험관광을 중시하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의 출현으로 생태관광, 모험관광, 복지관광, 역사관광, 해양관광, 농촌관광 등 새로운 형태의 테마관광이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국가적관심이 증대되면서 기존의 대량관광

광에 대한 반작용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연유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광정책 추진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대거 이양되면서 지자체 단위에서의 관광개발계획 및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생활환경개선 등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연,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관광기구가 발표한 아태관광시장의 주요동향보고서 [1]에 따르면, 미래의 관광시장은 여성 또는 고령층 관광객의 비중이 증가하고, 온라인 예약과 정보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며, 여행사는 여행컨설팅트로서 변모하고 관광객은 맞춤형 및 체험위주의 쌍방향적인 체험관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이 특수목적관광과 관련한 국내관광의 흐름 속에서 잠재방문객의 관광유형의 선택은 소비자행동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제품 간의 대체·보완관계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에 의해 판단되는데 관광의 경우 역시 선호관광유형은 관광객 즉 소비자의 선택행동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소비자의 관광유형선택은 타 유형과 비교하여 자신의 욕구가 잘 반영된 형태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며, 무념의 상태에서 아무런 목적과 제약 없이 관광유형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보편적으로 잠재소비자는 모든 관광유형에 관심을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할 것으로 한두 가지 특정유형에 특별한 관심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농촌관광과 생태관광은 정의 상관관계에 놓일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생태관광목적지는 농·산·어촌에 공히 입지하고 있어 농촌관광을 하게 되면 생태관광을 포기해야 되는 경쟁관계가 아니라 수요의 동반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적 근거에서 판단하건데 기타 관광유형들 간에도 상관관계는 반드시 존재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광유형 간 대체보완관계를 파악함은 물론 개인의 관광수요에 미치는 각각의 관광유형의 영향력 분석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국내관광 발전방향은 물론 관광정책수립에 소중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관광정책의 획일화를 방지하고 상호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과거 선행연구에서 관광유형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없었으며, 따라서 소비자 선택행동에 기초한 관광유형 간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의 시도는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특수목적관광의 개념 및 현황

오늘날 후기현대(late-modern)사회에서 관광소비의 패턴과 특수목적관광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가에 대한 관심의 다양성을 반영하고[2]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관광객들은 과거의 단순히 보고 휴식을 취하는 관광의 형태에서 벗어나 좋아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체험하고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형태의 관광을 선호하고 있으며, 단체보다는 개별여행자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靜의 관광보다는 動의 관광형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또한 관광의 형태는 GIT(general interest tourism)에서 MIT(mixed interest tourism) 그리고 SIT(special interest tourism)로 변화하고 있으며, UNWTO(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는 SIT를 특별한 관심이 있는 일들을 개발하거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 여행형태라고 정의하였다[4].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 Weiler and Hall[5]은 학력, 국민소득, 그리고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여행경험이 증가하게 되어 단순한 여가의 의미에서 여행이 아니라 여행을 통해서 자기발전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의 수요가 다양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농촌관광은 도·농 교류를 통해 도시민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농촌주민 스스로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통합적인 농촌지역 활성화 전략으로서 농촌관광이 바람직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관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다른 개발방향은 소규모적이고 지역중심적인 개발형태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6]. 농촌경제연구원인 송미령[7]은 농촌관광수요가 국내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현재 최소 1.7%에서 최대 9.4%에 이를 것으로 밝히면서, 이것은 농촌에 입지한 각종 휴양 시설방문 등 넓은 의미의 농촌관광수요는 9.4%이나, 정책적으로 육성한 관광마을에 대한 수요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국내관광 총량은 2014년 5억 6,000만 명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였으며, 넓은 의미의 농촌관광은 국내관광의 15.7%를 차지하고 관광마을에 대한 수요 역시 국내관광의 4.2%를 점유할 정도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하지만 농촌관광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공급중심의 농촌관광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양적수요의 충분한 확보는 물론 잠재수요를 유효수요로 유인하고, 유효수요가 고정수요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는 고객만족시장을 형성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촌관광의 정확한 수요관련 자료의 확보 및 이미 조성된 관광마을이나 향후 육성될 관광마을이 그에 걸맞은 행동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의 생태관광수요의 전망은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예측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생태관광의 증가추세를 1982년-1983년과 1994-1995년의 10년간을 대비할 때 탐조활동은 155%, 하이킹은 93%, 배낭여행은 73%가 증가한 반면 반 생태적인 관광인 수렵은 12%, 낚시는 9%가 감소하였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생태관광객에 대한 조사 자료를 보면 이들은 주로 전국평균보다 소득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이 많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8].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선진국의 생태관광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관광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생태관광에 관련한 상품개발이 생태관광증가의 한 원인이 된다고 본다. 미국과 캐나다의 생태관광객의 구성을 보면 상위소득계층과 고학력자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생태관광과 소득수준과 학력수준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국내생태관광의 증가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내의 해양관광은 단순관광에서 다양한 형태의 복합관광으로 점점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가족 중심의 여행이 증대되고 금전소비형에서 주말체험의 시간소비형으로 관광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해양레저, 스포츠관광 그리고 휴양관광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9]. 남·서해안에는 갯벌, 철새서식지, 바닷길 등의 생태적 해양자원과 어촌, 항만, 어항 그리고 해양레저·스포츠 자원이 풍부하다. 이러한 연유로 국내의 경우, 타 지역보다 전라남도에서 해양레저관광산업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으며, 2012년 여수해양엑스포의 기공식(2009)은 해양레저 관광시대의 시발점이 되었음은 물론 그 효력은 전남 동부권 뿐만 아니라 목포, 무안, 신안 등 서남권 지역으로까지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충남 태안에 건설되고 있어 향후 해양관광대중화의 진원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여행실태조사(2006)에 의하면, 국내여행총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간 한 번도 여행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관광산업의 외형적성장 과 함께 사회취약계층의 관광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기획재정부(2006)는 이에 대해 지원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복지관광에 관련한 연구는 국내의 경우, 노인[10-12]과 장애인[13]을 대상으로 한 소수의 연구가 존재할 뿐이며, 역사관광 또한 특수목적관광의 한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다루어진 예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하나의 주제로 다루어지기 위해 설정되어야 할 범위에 대한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2. 대체·보완관계

J. R. Hicks는 소비자가 종전과 다름없는 만족을 얻도록 X재가 화폐에 대하여 대체될 때, Y재의 화폐에 대한 한계 대체율(화폐로 표시한 한계효용)이 감소하면 Y재는 X재에 대한 대체재이고, Y재의 화폐에 대한 한계 대체율이 증가하면 Y재는 X재에 대한 보완재라고

정의한 바 있다(http://enc.daum.net/dic100/). 대체·보완관계는 주로 경제학에서 제품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때 흔히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서 판단되어질 수 있으며 관광분야에서 대체보완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수의 단위가 동일함을 전제로 해야 한다.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껌블 유형간 대체보완관계[14], 정부소비와 민간소비의 대체보완관계[15], 보완대체요법[16], 보완대체의사소통체계[17] 등 관광, 산업, 의학, 커뮤니케이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거론되고 있다.

### 3. 수요모형(demand model)

종속변수가 가산자료의 형태를 보이는 수요모형연구에 있어서 설정될 수 있는 모형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표준 포아송 모형(Poisson), 절단된 포아송 모형(TP: Truncated Poisson), 음이항 포아송 모형(NB: Negative Binomial), 절단된 음이항 모형(TNB: Truncated Negative Binomial), 영과잉 포아송 모형(ZIP: Zero Inflated Poisson), 영과잉 음이항 포아송 모형(ZINB: Zero Inflated Negative Binomial) 등이다. 이들 모형들 중에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자료수집방법과 과산포에 있다. 자료 수집은 크게 현장조사와 비 현장조사로 구분될 수 있으며, 현장조사의 경우에는 수집된 자료가 '0'에서 절삭되기 때문에 표준 포아송 대신에 절단된 포아송 모형을 설정해야하며 과산포 여부에 따라 절단된 음이항 모형의 설정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에 비 현장조사일 경우에는 자료의 형태가 '0'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표준 포아송모형을 설정해야 하지만 영과잉 포아송 모형과의 우도함수 값을 비교하여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자료가 과산포를 내포하고 있을 경우에는 음이항 모형과 영과잉 음이항 포아송 모형의 우도함수 값을 고려하여 최종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수요모형의 설정과 관련한 국내연구로는 소국섭·이희찬[18]과 이희찬·한진영[19]은 절단된 포아송(Truncated Poisson: TP)모형을 사용하여 각각 골프장 수요와 전시관람 수요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김연선·소국섭[20]은 맥주전문바 수요에 관한 연구를 위해

절단된 포아송 모형과 절단된 음이항 포아송 모형을 설정하고 각각의 설명변수에 대한 한계효과를 추정함으로써 변수의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국외연구에서는 주로 특허건수, 자동차사고횟수, 레크리에이션 활동수요, 교통수단 이용횟수, 기술혁신 활동횟수 등의 결정요인추정을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연구로는 사슴사냥[21], 하이킹[22], 보팅여행[23], 산악 바이킹[24] 등이 있다.

## III. 연구설계

### 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2010년 7월 한 달 동안 서울시민(각 구당 20부씩)을 대상으로 수집되었으며, 설문방법은 자기응답형식을 선택하였다. 구별로 할당된 설문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총 500부의 배포된 설문지 중에서 유효 표본으로 인정되는 최종 348부만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 2. 설문지구성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5개 유형별 관광횟수 그리고 개인별 국내 총 관광횟수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즉 특수관광유형으로 구성된 5개의 관광유형(농촌, 해양, 생태, 복지, 역사관광)에 대해 지난 일 년 동안 다녀왔던 관광유형을 선택하고 그 횟수를 기입하게 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총 국내관광 횟수는 개인이 다녀온 유형별 관광횟수를 합하여 계산하였다. 특히 응답자 자신이 다녀온 관광유형에 대한 이해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각 관광형태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였다.

### 3. 모형설정

본 연구에 필요한 모형은 먼저, 비 현장조사를 통해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준 포아송, 영과잉 포아송모형을 고려하였으며, 과산포 여부에 따라 음이항포아송모형, 영과잉음이항 포아송모형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1) 포아송 모형(Poisson)

관측치 '0'을 포함한 포아송분포의 확률밀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Pr(Y=y) = \frac{e^{-\lambda}\lambda^y}{y!}, \quad y = 0, 1, 2, \dots \quad (1)$$

여기서  $\lambda$ 는 이 분포의 평균이면서 동시에 분산이고 '0' 보다 큰 값을 갖는다.

$$E(Y) = \lambda = \exp(X\beta) = \text{var}(Y) \dots \dots \dots (2)$$

2) 영과잉 포아송모형(ZIP: Zero Inflated Poisson)

표준 포아송모형에서 자료가 '0'일 경우에 이에 대한 해석은 지속적인 불참과 해당기간동안에만 불참 등 두 가지로 가능해진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표준 포아송 모형의 적용은 '0'에 대한 이론적 발생확률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14]. 따라서 불참이 아니라 단순한 횡수의 의미일 경우, 표준 포아송 모형의 확장을 통해 영의 확률을 변경시킬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접근방법이 영과잉 포아송 모형의 적용이다.

$Y \sim 0, \quad p_i$  확률에서

$Y \sim \text{Poisson}(\lambda), (1-p_i)$ 의 확률에서,

여기에서  $0 \leq p_i \leq 1$ 은 영의 값에서 주어지는 임의 확률이며,  $\lambda=0$ 은 포아송 분포의 평균이다. 이때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P_r(Y=0) = p_i + (1-p_i)\exp(-\lambda)$$

$$P_r(Y=k) = (1-p_i) \frac{\exp(-\lambda)\lambda^k}{k!}, \quad k = 1, 2, 3, \dots \quad (3)$$

3) 음이항 포아송모형(NB: Negative Binomial)

수집된 자료가 과산포를 내포하고 있다면 포아송 모형보다 NB 모형을 설정해야하며, 그 분포의 함수는 다음과 같다.

$$\Pr(Y=y) = \frac{\Gamma(y+1/\alpha)}{\Gamma(y+1)\Gamma(1/\alpha)} (\alpha\lambda)^y (1+\alpha\lambda)^{-(y+1/\alpha)}$$

$$y = 0, 1, 2, \dots \quad (4)$$

음이항 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다음과 같다.

$$E(Y) = \lambda = \exp(X\beta), \text{Var}(Y) = \lambda(1+\alpha\lambda),$$

$$(E(Y) < \text{Var}(Y)) \dots \dots \dots (5)$$

여기서,  $\alpha$ 는 과산포 파라미터로 만약  $\alpha=0$ 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음이항모형이 적합하다.  $\alpha=0$ 인 경우에는 음이항 포아송 모형의 분석결과는 표준 포아송 모형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

4) 영과잉 음이항 포아송모형(ZINB: Zero Inflated Negative Binomial)

관찰된 가산자료가 영과잉(excess-zero)과 과산포 문제를 동시에 보일 경우, 전술한 ZIP모형과 NB모형을 결합한 형태의 영과잉-음이항 포아송 모형(Zero Inflated Negative Binomial: ZINB)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포아송 모형(Poisson)을 포함하여 ZIP, NB, ZINB 등 4개의 모형을 추정한 후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형을 통해 설명변수를 해석하였다.

IV. 실증분석

1. 표본의 특성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48)

	구분	빈도	비율 (%)		구분	빈도	비율 (%)	
성별	남성	173	49.7	학력	중졸	17	4.9	
	여성	175	50.3		고졸	53	15.2	
연령	20대	69	19.8	대졸	231	66.4		
	30대	107	30.8	대학원 재학 및 졸업	47	13.5		
	40대	87	25	100만원	32	9.2		
	50대	52	15	100-200만원	42	12.1		
	60대 이상	33	9.4	200-300만원	53	15.2		
직업	전문직	43	12.4	소득	300-400만원	78	22.4	
	사무직	69	19.8		400-500만원	67	19.3	
	생산/기능직	48	13.8		500-600만원	24	6.9	
	판매/서비스	39	11.2		600-700만원	23	6.6	
	자영업	52	15		700만원 이상	29	8.3	
	학생	28	8					
	주부	42	12.1					
	기타	27	7.8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표 1]. 성별의 경우 남성과 여성은 49.7%(173명), 50.3%(175명)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30.8%(107명), 40대가 25%(87명) 그리고 20대가 19.8%(69명)로 전체응답자의 70%를 이루고 있었다. 직업의 구성분포를 보면, 사무직 종사자가 19.8%(69명), 자영업 종사자 15%(52명), 생산/기능직 종사자가 13.8%(48명), 전문직 종사자가 12.4%(43명)로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이 밖에 학력은 압도적으로 대졸 학력자가 우세하였으며, 소득에 있어서는 300-500만원 사이의 소득자가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었다.

2. 관광유형 간 대체·보완관계

본 연구에서 관광유형 간 대체보완관계를 밝히기 위해 접근된 방법은 변수 간 선형관계의 정도를 파악하는 통계기법인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의 적용이다. 분석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위한 대안으로는 대체보완관계가 예측되는 관광유형을 포함하여 분석한 후, 예상한 결과와의 일치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상관분석에 포함된 수요의 대상으로서 특수목적관광유형은 농촌관광, 생태관광, 해양관광, 역사관광, 복지관광 등이다.

피어슨(pearson)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두 변수 간의 순수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 3의 변수를 통제해야한다. 이유는 개인의 총 국내관광 빈도는 분석에 포함된 각 관광유형의 빈도를 합하여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총 국내관광빈도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면 관광유형 간 상호보완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正의 상관관계만을 보일 수밖에 없다[표 2].

따라서 총 국내관광 빈도를 통제하여 그 영향력을 배제할 경우 관광유형 간 의미 있는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3]은 총 국내관광 빈도를 통제하고 분석한 편 상관관계분석(partial correlation)의 결과로서 농촌관광은 해양관광과 대체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역사관광과 복지관광은 해양 관광과 생태관광에 대해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

으며, 나머지 관광유형 간에는 보완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 관광유형 간 상관관계분석

	총 국내 관광	농촌 관광	생태 관광	해양 관광	역사 관광	복지 관광
총 국내관광	1					
농촌관광	.718**	1				
생태관광	.837**	.732**	1			
해양관광	.321**	.178**	.156*	1		
역사관광	.686**	.622**	.598**	.271**	1	
복지관광	.784**	.779**	.720**	.255**	.604**	1

\*, \*\*: 각각 5%, 1% 수준에서의 유의도를 의미함

표 3. 관광유형 간 편 상관관계분석

	농촌관광	생태관광	해양관광	역사관광	복지관광
농촌관광	1				
생태관광	.312**	1			
해양관광	-.345**	.223**	1		
역사관광	.231**	.029	.072	1	
복지관광	.484**	.103	.011	.129*	1

\*, \*\*: 각각 5%, 1% 수준에서의 유의도를 의미함

3. 한계효과

한계효과의 추정을 위해서는 설정된 수요모형들 중에서 가장 적절한 모형 선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자료의 과산포 검증<sup>1)</sup>을 수행한 결과, 자료가 과산포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NB모형과 ZINB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예상한 바와 같이 이 두 모형에서 우도함수 값(log likelihood function)이 다른 두 모형의 값보다 높아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가장 적절한 모형으로 ZINB모형을 통해 구해진 추정치를 이용하여 한계효과를 추정하기로 한다[표 5].

1) 과산포 검증은 NB모형과 ZINB모형을 통해 추정되는 과산포 파라미터( $\alpha$ )의 크기와 유의성에 의해 판단되는데 두 모형 모두에서  $\alpha$  값이 각각 0.416(NB), 0.402(ZINB)로  $\alpha > 0$ , 그리고 1%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자료가 과산포를 내포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표 4. 변수정의 및 기술통계(n=348)

변수구분	변수 명	변 수 정 의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NTRIP	총 국내관광 횟수(/1년)	3.31(4.334)
	AGRI	농촌관광 횟수(/1년)	.352(1.128)
	ECO	생태관광 횟수(/1년)	.316(.953)
독립변수	OCEAN	해양관광 횟수(/1년)	1.36(2.743)
	HISTORY	역사관광 횟수(/1년)	.22(1.494)
	WELFARE	복지관광 횟수(/1년)	.03(.275)

표 5. 관광수요모형의 추정

변 수	총 국내관광 횟수			
	Poisson	NB	ZIP	ZINB
	계수 값 (t-값)	계수 값 (t-값)	계수 값 (t-값)	계수 값 (t-값)
Constant	.796 (17.485)**	.704 (9.472)**	.936 (32.477)**	.714 (11.003)**
AGRI	.028 (1.064)	.047 (.972)	.027 (1.547)	.047 (1.014)
ECO	.271 (16.940)**	.284 (5.693)**	.256 (19.544)**	.282 (3.326)**
OCEAN	.059 (7.863)**	.101 (4.102)**	.054 (12.161)**	.101 (7.023)**
HISTORY	.111 (8.716)**	.118 (3.555)**	.102 (14.984)**	.118 (2.362)*
WELFARE	.247 (3.760)**	.168(.967)	.230(.395)	.167(.114)
$\alpha$ (과산포파라미터)		.416 (5.932)**		.402 (4.156)**
Log likelihood function	-603.1116	-534.4083	-586.4902	-534.1731
Chi squared	356.735 (p<.000)	137.406 (p<.000)	397.977 (p<.000)	136.761 (p<.000)
Vuong statistics			2.231*	.597
Degrees of Freedom	5	5	5	5
Number of observations	348	348	348	348

\*, \*\*: 각각 5%, 1% 수준에서의 유의도를 의미함

그러나 사실상 모형들 간의 계수의 유의성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 적절한 모형 선택과정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한계효과추정에서는 계수의 유의성은 물론 그 크기까지도 고려되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계효과는 설정된 모형에서의 유의성이 확인된 설명변수에 대해서만 추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독립변수의 형태에 따라 영향력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 즉, 비윤리적일 경우에는 탄성치<sup>2)</sup>를 더미변수일 경우에는 한계효

2) 탄성치

과<sup>3)</sup>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의 형태는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탄성치를 통해 그 영향력을 설명하고자 한다. [표 6]에 의하면 생태관광의 탄성치는 약 0.027, 역사관광의 탄성치는 0.008 그리고 해양관광은 0.042로 추정되었다.

표 6. 탄성치(ZINB)

설명변수	한계효과 (marginal effects)	탄성치(elasticity)
ECO (생태관광)	0.282**	0.0269
WELFARE (복지관광)	0.167	0.0015
AGRI (농촌관광)	0.047	0.005
HISTORY (역사관광)	0.118*	0.0078
OCEAN (해양관광)	0.101**	0.0415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특수목적관광 유형 간 대체·보완관계를 파악함을 물론 이들 각각의 특수목적관광 유형이 국내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여 국내관광의 흐름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관련정책수립에 있어서 소중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편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파악된 특수목적관광 유형들 간의 대체보완관계에 있어서 농촌관광과 해양

$$elasticity_k = \lambda \beta_k \cdot \frac{\bar{X}_k}{\bar{Y}}$$

여기에서  $\bar{X}_k$ 는 k번째 설명변수의 평균을  $\bar{Y}$ 는 수요량의 평균을 의미한다.

3) 한계효과

$$marginal\ effects_k = \frac{\partial E(Y|X_k)}{\partial X_k} = \lambda \beta_k$$

여기에서  $\lambda$ 는 각 관광유형을 다녀온 횟수의 평균과 분산을 나타내며, k번째 설명변수의 파라미터인  $\beta_k$  간의 곱으로 표현된다

관광이 상호 대체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이들 유형의 관광형태는 계절적 편향이 심한 국내관광 현상을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 특히 휴가철에 나타나는 이 두 유형의 경쟁관계는 두드러진다. 즉, 대표적인 휴가목적지로서 산과 바다가 언급될 수 있다면 관광유형으로 보면, 농촌관광과 해양관광으로 대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두 유형의 관광형태는 상호 경쟁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목적지 선택은 절대적으로 소비자 심리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공급자가 개인이 아닌 정부인 까닭에 한쪽으로 지나친 개발의 편중은 목적지 혼잡과 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은 물론 지역개발에 있어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개발정책 수립의 주체는 이러한 관광유형간의 관련성을 인지하고 정책수립에 있어서 편중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촌관광은 생태관광, 역사관광, 그리고 복지관광과도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하면, 농촌관광이 이들 유형들과 상호보완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성은 농촌관광이 이들 관광유형들과 교육이라는 관광목적을 공유하고 있으며, 목적지 입지가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복지관광은 여행에 소외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환원관광으로 정의 될 수 있으므로 관광목적지로서 상생을 목적으로 비교적 발전이 덜 된 농촌이 많이 선택되고 있는 연유에 있다고 본다.

생태관광은 해양관광과 그리고 역사관광은 복지관광과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생태관광과 해양관광은 바다라는 목적지 특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되며 생태관광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해양관광 또한 자신의 관심범주에 놓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사관광과 복지관광의 상호보완관계에 대한 설명은 역사유적지, 산성, 그리고 경복궁 등 역사관광지가 복지관광의 목적지로도 선택되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유형들은 한 유형에 대한 수요는 동반수요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에 역사관광과 복지관광은 생태관광

또는 해양관광 간의 상관관계는 존재하나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한편 개인의 총 국내관광수요에 미치는 특수목적관광 유형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독립변수의 한계효과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한계효과는 독립변수 한 단위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단위당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비올척도일 경우에는 추정치에 대한 해석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각 설명변수의 1%변화에 대응하여 역시 %로 표현되는 수요량의 변화를 의미하는 탄성치를 통해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탄성치 추정결과, 생태관광의 탄성치는 0.0269, 역사관광의 탄성치는 0.0078 그리고 해양관광의 탄성치는 0.0415로 추정되었으나 계수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복지관광과 농촌관광에 대한 해석의 제공은 무의미 할 것으로 판단된다.

탄성치 추정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자면, 개인의 국내관광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특수목적관광유형은 해양관광으로서 해양관광수요 1%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총 관광수요는 약 0.04% 증가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생태관광과 역사관광이 각각 0.02%, 0.007% 씩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연하자면, 해양관광, 생태관광, 그리고 역사관광수요가 현재에 비해 2배로 증가한다고 가정한다면 개인의 총 관광수요에 기여하는 바는 각각 4%, 2%, 0.7%가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외로 농촌관광이 개인의 총 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구자의 기대와는 달리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기술통계[표 4]에서도 나타났듯이 농촌관광 연 평균 빈도가 0.4회로써 평균 개인 총 관광수요(3.31회)의 10.6%로 상대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이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농촌개발에 많은 관심을 쏟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농촌관광이 국내관광발전에 기여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기에는 여전히 만족스러운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사회 그리고 봉사하는 사회를 위한 척도 중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는 복지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내수관광시장의 수요증진은 물론 농어촌 체험관광시장에 방문수요확대에 기여함으로써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문헌

- [1] UNTWO, "Mega-Trends of Tourism in Asia-Pacific," 2006.
- [2] N. Douglas, N. Douglas, and R. Derret (Eds.), "Special interest tourism. Melbourne, Australia: Wiley," 2001.
- [3] 박준희, "SIT 상품개발을 위한 시장세분화연구", 관광경영학연구, 제12권, pp.50-77, 2001.
- [4] B. Trauer, "Conceptualizing special interest tourism-frameworks for analysis," *Tourism Management*, Vol.27, pp.183-200, 2006.
- [5] B. Weiler, and C. M. Hall, "Speacial interest tourism London: Belhaven Press," 1992.
- [6] 강신겸, "농촌관광과 문화마케팅전략", 문화경제연구, 제8권, 제1호, pp.81-95, 2005.
- [7] 송미령, "농촌관광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 [8] D. A. Fennell, and D. C. Malloy, "Measuring theethical nature of tourism operator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26, No.4, p.928-943, 1999.
- [9] 이동신, "해양관광개발을 위한 주민의식분석 연구", 한국도서연구, 제21권, 제2호, pp.209-229, 2009.
- [10] 한은진, "실버계층의 삶의 질에 대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예비실버층과 실버층의 비교 분석", 관광연구, 제24권, 제1호, pp.165-184, 2009.
- [11] 김창수, "노인 사회복지관광정책의 인식 및 요구도 분석", 한국관광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pp.1-20, 2005.
- [12] 조구현, "노인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체 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14권, 제3호, pp.273-194, 2005.
- [13] 이장춘, 김선영, "장애인 복지관광의 실증적 연구", 관광정책학연구, 제9권, 제2호, pp.1-24, 2003.
- [14] 이희찬, "국내 카지노갬블 수요의 결정요인분석; 스포츠갬블 및 불법도박과의 대체 및 보완관계를 중심으로", (주)강원랜드 용역보고서, 2009.
- [15] 조성일, "정부소비와 민간소비의 대체/보완관계; 소비준거 자본자산 결정모형의 추정",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1호, pp.149-165, 2008.
- [16] 이병호,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치위생과 학생들의 태도조사", 한국위생과학회지, 제14권, 제1호, pp.89-97, 2008.
- [17] 류현주, "비구어 발달장애아의 보완대체 의사소통체계 적용방안 고찰,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49(0), pp.59-71, 2007.
- [18] 소국섭, 이희찬, "절단된 포아송 모형을 활용한 골프수요에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31권, 제2호, pp.9-27, 2007.
- [19] 이희찬, 한진영, "전시관람수요의 결정요인", 관광학연구, 제28권, 제3호, pp.307-326, 2004.
- [20] 김연선, 소국섭, "맥주전문바 이용객의 방문빈도 결정요인 및 한계효과; 강남지역의 맥주 전문바를 중심으로", 외식경영연구, 제11권, 제3호, pp.73-94, 2009.
- [21] M. Creel, and J. Loomis, "Theoretical and empirical advantages of truncated count data estimators for analysis of deer hunting in California,"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72, pp.434-441, 1990.
- [22] J. Englin, and J. Shonkwiler, "Estimating social welfare using count data models: An application to long-run recreation demand under conditions of endogenous stratification and trunc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77, pp.104-112, 1995.
- [23] S. Gurmu, and P. Trivedi, "Exess zeros in count models for recreational trips,"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s Statistics*, Vol.14, No.4, pp.469-477, 1996.

- [24] P. Fix, J. Loomis, and R. Eichhorn,  
"Endogenously chosen travel costs and the  
travel cost model: An application to mounting  
biking at Moab, Utah," *Applied Economics*,  
Vol.32, No.10, pp.1227-1238, 2000.

#### 저 자 소 개

곽 강 희(Gang-Hee Gwak)

정회원



- 1999년 : 세종대학교 경영학 석사
- 2007년 :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 박사
- 2006년 ~ 현재 : 부산동명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호텔경영학, 관광마케팅, 카지노